

청소년기의 외모관심이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에 미치는 영향

하경연* · 한보현

한국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조교수*
안양과학대학 뷰티스타일리스트과 외래교수

An effect of a hair equipment for presenting hair and selection of a product by an interest in appearance during adolescence

Ha KyungYun* · Han Bohyu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Adjunct professor, Dept. of Beauty Stylist of Anyang Science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was examined that the behavior of which they select hair equipment and a product may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n interest in appearance during adolescence. This study was presented that according to gender, a girl student has higher confidence in appearance than a boy student, and also the higher the confidence in the girl's appearance, and they use more hair products. Moreover, the boy students are higher in than a girl student in the rate of dependence on hair equipment, so the boy students intend to use hair equipment. Therefore, this study was presented that the gender and an interest in appearance is important variables which influence to hair fashion of adolescence on an equipment and a product during presenting a hair-style, an interest in appearance of adolescence significantly influences on explaining the degree of hair equipment and leverage products as well.

Key Words : an interest in appearance(외모관심), hair-style(헤어스타일), hair equipment for presenting hair(헤어연출기기), a product for presenting hair(헤어연출제품)

1. 서론

청소년기는 소속 집단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해지는 성장기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신의 신체 이미지 및 스타일 표현에 매우 적극적이다.

또한 급격한 신체 변화 및 사회성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신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하는 때로¹⁾,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그들의 외모가꾸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²⁾, 청소년들의 외모관심으로 인한 헤어스타일 행동은 헤어스타일 연출 시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자신의 외모가꾸기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이 결정적인 단서가 됨으로 헤어스타일 연출 시 사용되는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헤어스타일 연출에 사용되는 헤어연출기기나 제품은 모발에 자극을 주므로 모발 자체는 물론 두피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³⁾ 특히 왁스와 스프레이 등 스타일링제품 사용 후 청결히 하지 않으면 두피의 모공을 막기 때문에 모발 및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⁴⁾, 헤어스타일링 기기는 높은 열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모발의 수분을 증발시켜 모발의 유연함을 없애고 원하는 스타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모발 및 두피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⁵⁾

청소년대상의 외모관심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복행동⁶⁾⁷⁾, 의복 및 모방행동⁸⁾⁹⁾¹⁰⁾, 뷰티행동¹¹⁾, 헤어연출제품 및 화장품구매행동¹²⁾¹³⁾ 등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어연출에 사용되는 헤어스타일링 기기 및 제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외모관심에 대한 설명 변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인구통계적 특성, 헤어스타일 연출 기기 및 제품선택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 기기 및 제품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미용산업분야에서 헤어연출기기나 제품 마케팅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미용실무자들의 효율적인 고객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심의 차원을 파악한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를 살펴본다.

셋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선택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넷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제품선택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섯째,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시 제품 및 기기선택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여섯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 및 제품선택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일곱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시 제품 및 기기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외모관심

외모는 얼굴생김새, 표정, 말씨, 몸짓, 의복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이미지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모관심도는 겉으로 보여 지는 이미지에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¹⁴⁾¹⁵⁾

Thompsn과 Heinberg¹⁶⁾는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신체이미지의 관계는 매우 높다고 하였다.

Froming과 Carver¹⁷⁾는 공격자기의식이 높을수록 타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은희¹⁸⁾는 청소년기는 성장과정 중 이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로 이성에게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모관심이 높아지고 더불어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통해 또래집단과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는 상대방의 인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¹⁹⁾ 서로의 외적연출 정보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의 스타일 변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자 한다.

서윤경²⁰⁾의 연구에서는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또래들로부터 무반응과 거부를 당하고 스스로 비관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조선명²¹⁾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교적이고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지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였다.

홍선옥²²⁾, 허정아²³⁾의 연구에서는 교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제한된 의복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스타일로 많은 변화를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일탈집단의 경우 대부분 개성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반해 모범집단의 경우 비교적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복 스타일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장진영외²⁴⁾는 남성의 외모관심도와 화장품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외모관심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외모관리, 체형관련, 체중관련, 몸매유지 등의 4개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국산브랜드보다 해외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지수²⁵⁾, 우지영²⁶⁾, 은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외모 관심도가 높을수록 피부관리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피부관리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외모가 또래집단 내에서의 평가의 척도가 되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외모관심이 의복 및 헤어스타일태도, 화장품구매행동, 피부관리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헤어스타일링 기기 및 제품선택에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2.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

1) 헤어연출기기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한 기기는 시술 시 모발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과도한 열을 사용함으로써 두피 및 모발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²⁷⁾

아이론 즉 고데기라고 불리는 헤어연출기기는 120~140°의 온도를 이용하여 모발의 질감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주로 미용전문가들이 사용하여 왔으며²⁸⁾, 전문 기술을 요하였으나 최근 들어 전기아이론이 개발되면서 일반인들의 사용이 매우 용이해 졌다.

그러나 드라이어기와 아이론의 무분별한 사용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yakup²⁹⁾에 의하면 두피가 건조한 상태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것은 건조함을 더욱 가속시키고,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드라이어를 사용해야 할 때는 되도록 찬바람으로 말리고 찬바람은 뜨거운 바람보다 모발과 두피에 자극이 적을 뿐 아니라 스타일을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ydaily³⁰⁾는 젖은 모발은 말린 모발보다 손상되기 쉬우므로 약간 건조된 느낌이 들 정도의 상태까지 말린 다음 드라이어기와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타일링을 해야 하며, 머리를 말릴 때는 따뜻한 바람보다는 찬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문화저널³¹⁾에는 전기아이론은 등장 이후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으며 열판 두 개가 집게 형태로 되어 있어 시간과 돈을 들여 미용실을 찾지 않아도 스트레이트부터 펌 스타일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헤어아이론의 원리가 높은 열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모발의 수분을 증발시켜 모발의 유연함을 없애고 원하는 스타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잘못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하여 모발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아이론을 사용할 경우 모발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샴푸와 함께 린스를 사용해야하며, 헤어트리트먼트를 사용

한 지속적인 모발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헤어기기관련 선행연구에서 임인숙³²⁾은 미용실 실무자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이론을 이용한 펌 시술 후 문제점으로 모발손상이 가장 크며, 뽀뽀함과 건조함, 영양부족이 주요한 우려사항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디자이너의 권유로 모발손상 방지를 위해 모발보호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형³³⁾은 열에 의한 손상을 입은 모발의 형태학적 변화를 살펴 본 실험연구에서 드라이어를 사용한 모발을 1개월~4개월로 구분하여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1개월이 지난 모발은 표피층이 심하게 손상되어 떨어져 나가있었고, 비늘층 문리들이 찢어진 부분이 몇 곳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2개월이 지난 모발은 표피층이 들떠 있고, 비늘층 문리들이 떨어져 나가 겹쳐진 모양이 불안정해 보였다고 하였다.

3~4개월이 지난 모발은 모든 표피층이 들떠 있었으며, 떨어져 나간 부분이 모든 층에서 나타났고, 큐티클층의 침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볼 때 드라이어나 전기아이론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모발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사용실태 파악 및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헤어연출제품

최근 들어 자극이 강한 펌과 염모, 왁스나 스프레이와 같은 스타일링제의 잦은 사용으로 여성들의 탈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모발 손상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좋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³⁴⁾

이종순³⁵⁾의 헤어제품 유해성관련 연구에서 헤어스프레이의 경우 화학첨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와 호흡기 등으로 흡입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제품 사용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gooddaysports³⁶⁾는 10대나 20대의 경우 자신의 이미지 변화 및 개성연출을 위해 펌이나 염색을 자주하거나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하여 왁스, 스프레이 등의 제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모발과 두피에 손상을 입어 탈

모로 이어지는 현상이 잦은데, 특히,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mydaily³⁷⁾에서는 모발 끝에 많은 양의 스타일링 제품을 도포했을 경우 두피에는 과도한 양의 유분이 분비될 수 있으며, 죽은 세포들이 쌓이기 때문에 스타일링 제품의 선택 및 사용법에 대한 지각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헤어스프레이를 사용 할 경우, 하얗게 떨어지는 각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뿌리는 것이 좋다. 또한 왁스와 스프레이 등 스타일링제의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지 않으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시키므로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³⁸⁾

이상에서 청소년기의 헤어스타일 연출 시 사용되는 헤어 기기와 제품이 모발·두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³⁹⁾⁴⁰⁾를 기초로 볼 때 청소년기에 있어 외모가 또래집단 내에서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며, 나아가 의복이나 헤어스타일태도로 이어져 헤어스타일 기기 및 제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 및 기기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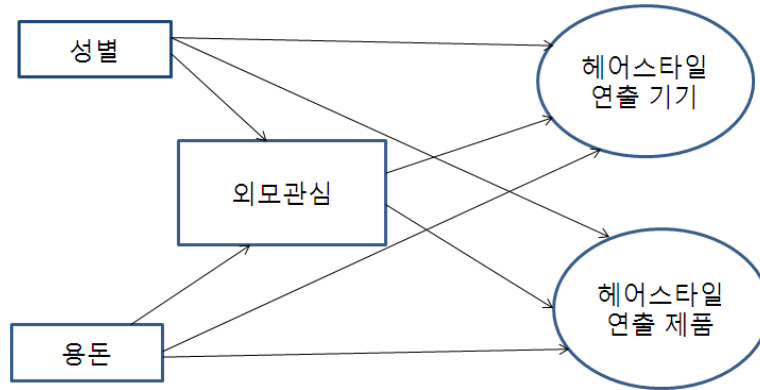
1. 연구의 모형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법이었으며, 질문지의 구성은 외모관심,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 및 기기 선택,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외모관심 문항은 김은주⁴¹⁾, 정지영⁴²⁾의 선행연구에서 측정도구를 선택, 수정하여 외모자신감, 외모 열등감에 대한 내용을 각 5개 문항으로 총 10문항이었으며,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헤어스타일 연출 시 사용하는 기기 및 제품에 대한 2문항과 인구통계적 변인으로서 성별, 용돈을 조사하는 내용 2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림 2> 연구의 모형

3.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2011년 5월중에 시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은 경남 진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남·여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73명(남학생: 148명, 여학생: 125명)이었다. 대상자들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피하고자 학교를 유형별로 나누어 편의표집하였다. 학교는 남자인문계고교 148명, 여자인문계고교 125명이었다.

질문지의 회수는 본 연구자가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응답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총 2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27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분포는 성별은 남학생이 148명(54.2%), 여학생이 125명(45.8%)였으며, 용돈은 2만원 이상~6만원 이하가 52.7%로 가장 많았고, 6만원 이상이 26.0%, 2만원 이하 21.5% 등의 순이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t-검정,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검증, χ^2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외모관심의 차원

외모관심 10개의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을 선택한 결과 적합한 요인 수는 2개로 나타났다.

외모관심 측정문항 및 2개 차원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과 요인의 상관계수 및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모두 5개 문항으로 그 내용은 ‘나의 외모는 매력적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외모자신감’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부하량은 .46이상이었다. 신뢰도 α 값은 .77이었다. 요인 2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나는 외모 때문에 이성친구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등 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모열등감’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9이상이었다. 요인 2의 신뢰도 α 값은 .61이었다.

<표 1>의 결과와 같이 외모관심의 요인은 ‘외모 자신감’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이며, ‘외모열등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

<표 1> 외모관심의 요인분석

요인	요인부하량	요인신뢰도
요인 1. 외모자신감		
나의 외모는 매력적이다.	.828	.77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784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762	
아침에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	.706	
나는 내 몸매가 마음에 든다.	.461	
전체 변량=31.19 % 고유치= 2.81		
요인 2. 외모열등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736	.61
나는 외모 때문에 이성친구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648	
다른 사람들이 살찐다는 소리를 하면 내 몸무게가 늘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인다.	.614	
나는 절식 및 단식 등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	.596	
전체 변량=54.85 % 고유치= 2.13		

<표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

(n=273)

인구통계적 특성		유행추구성향	외모자신감	외모열등감
		성별	남	2.69
	여	2.81	2.92	
	t	-1.19	-4.57**	
용돈	2만원 이하	2.52(a)	2.60	
	2~6만원 이하	2.72(a)	2.72	
	6만원 이상	2.99(b)	2.67	
	F	5.66*	.47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심과의 차이를 t검증과 F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성별에 따른 외모관심과의 차이는 여자가 외모열등감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는 외모자신감이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더 많이 느끼며, 남학생의 경우 용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희⁴³⁾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 하였다.

3.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 선택과의 관계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선택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 선택의 관계

구분	헤어연출 기기			계	χ^2	
	드라이어기	셋팅기	사용 않음			
성별	남 (n=148)	93 (62.8)	15 (10.1)	40 (27.0)	148 (100)	24.78** df=2
	여 (n=125)	87 (69.6)	30 (24.0)	8 (6.4)	125 (100)	
	계	180(65.9)	45(16.5)	48(17.6)	273(100)	
용돈	2만원 이하 (n=58)	36 (62.1)	8 (13.8)	14 (24.1)	58 (100)	5.69 df=4
	2~6만원 이하 (n=144)	91 (63.2)	29 (20.1)	24 (16.7)	144 (100)	
	6만원 이상 (n=71)	53 (74.6)	8 (11.3)	10 (14.1)	71 (100)	
	계	180(65.9)	45(16.5)	48(17.6)	273(100)	

**p<.001 ()=col. %

<표 3>에서 Column %로 볼 때 남학생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드라이어기를 62.8%, 셋팅기 10.1%, 사용하지않음 27.0%로 드라이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은 2~6만원이하의 학생이 63.2%로 헤어스타일 연출 시 드라이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보편적으로 모발 길이가 짧은 스타일이므로 다양한 연출이 용이하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헤어스타일의 스타일 변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간 수준정도의 용돈을 받는 학생이 더 헤어스타일 연출 시 드라이어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용돈수준이 헤어스타일 연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홍선옥⁴⁴⁾, 허정아⁴⁵⁾의 연구에서 제한된 의복으로 그들 자신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스타일로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4.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제품 선택과의 관계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제품 선택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Column %로 볼 때 남학생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왁스, 스프레이를 남학생이 59.5%, 여학생이 20.0%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은 왁스나 스프레이를 6만원이상의 학생이 56.3%, 2~6만원 이하의 학생이 41.0%, 2만원이하의 학생이 24.1%로 6만원이상의 높은 수준의 용돈을 받는 학생이 왁스나 스프레이 등의 스타일링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센스는 여학생이 45.6%, 남학생이 10.8%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에센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왁스나 스프레이로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이미지변신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여학생의 경우 헤어스타일의 변화 보다는 모발의 건강을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진영 외⁴⁶⁾, 이지수⁴⁷⁾, 우지영⁴⁸⁾의 남자가 화장품 구매의도와 피부관리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표 4>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적합한 제품 선택과의 관계

구분	헤어연출제품			계	χ^2	
	왁스, 스프레이	에센스	사용 없음			
성별	남 (n=148)	88 (59.5)	16 (10.8)	44 (29.7)	125 (100)	56.63** df=2
	여 (n=125)	25 (20.0)	57 (45.6)	43 (34.4)	48 (100)	
	계	113(41.4)	73(26.7)	87(31.9)	273(100)	
용돈	2만원 이하 (n=58)	14 (24.1)	14 (24.1)	30 (51.7)	58 (100)	20.40** df=4
	2~6만원 이하 (n=144)	59 (41.0)	40 (27.8)	45 (31.3)	144 (100)	
	6만원 이상 (n=71)	40 (56.3)	19 (26.8)	12 (16.9)	71 (100)	
	계	113(41.4)	73(26.7)	87(31.9)	273(100)	

**p<.001 ()=col. %

<표 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

(n=273)

인구통계적 특성		헤어연출기기	헤어연출제품
성별	남(n=148)	1.64	1.70
	여(n=125)	1.37	2.14
	t	2.93*	-4.41**
용돈	2만원 이하(n=58)	1.62(a)	2.28(c)
	2~6만원 이하(n=142)	1.53(a)	1.90(b)
	6만원 이상(n=70)	1.39(a)	1.60(a)
	F	1.44	10.57**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5.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제품 선택과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성별에 따른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는 헤어연출 기기와 헤어연출제품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연출기기

는 남학생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연출제품은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헤어연출기기가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헤어연출제품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용돈과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는 헤어연출제품에서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 수준이 헤어연출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돈에 따른

<표 6>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 및 제품선택과의 상관관계

(N=273)

항 목	외모자신감	외모열등감
헤어연출기기	-.141*	-.061
헤어연출제품	-.243**	-.007
성별	-.073	-.268**
용돈	.204**	.019

*p<.05, **p<.01

<표 7>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 및 제품 선택에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헤어 연출 기기	성별	.355	.150	2.39*	R ² =.044 F=3.06* constant=1.82
	용돈	-.165	-.097	-.155	
	외모자신감	-.145	-.102	-.647	
	외모열등감	.003	.002	.037	
헤어 연출 제품	성별	-.424	-.204	-3.34**	R ² =.107 F=7.95** constant=1.73
	용돈	-.234	-.090	-1.50	
	외모자신감	-.230	-.229	-3.84**	
	외모열등감	-.168	-.061	-1.01	

*p<.05, **p<.01

차이는 헤어연출기기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뉴스⁴⁹⁾에서의 아이론이 여성들에게 중요한 필수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시사되었던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6.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 및 기기선택과의 상관관계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 및 기기선택과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각 변인들은 외모자신감이 헤어연출기기가 p<.0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헤어연출제품, 용돈에서는 p<.0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모열등감은 성별에서만 p<.0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별과 외모열등감이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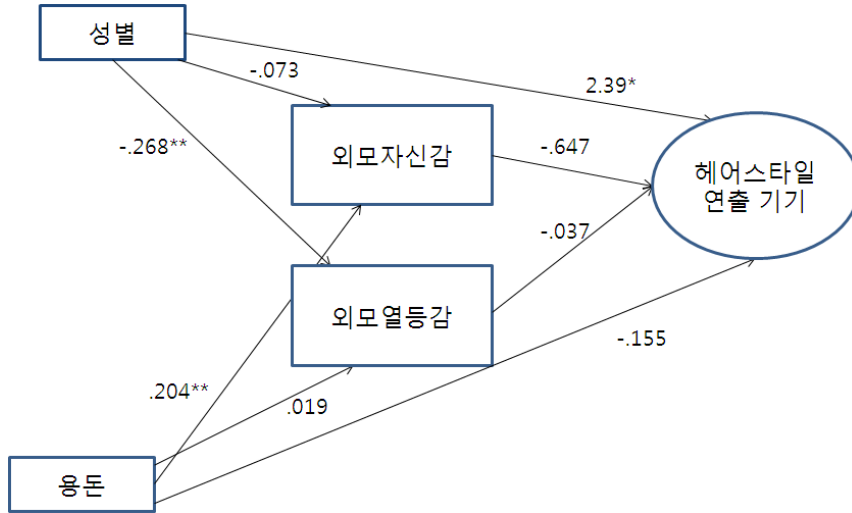
높은 상관이 있었다. 외모자신감은 용돈,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각 변인과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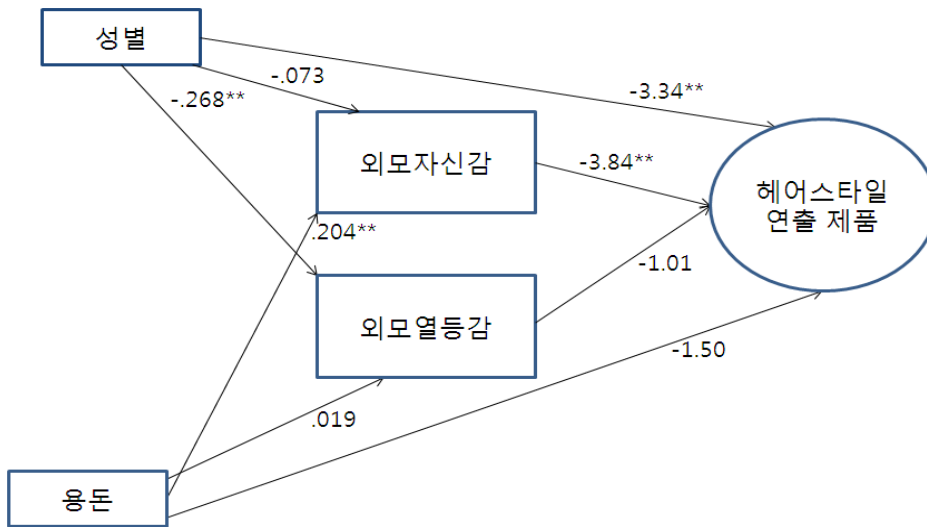
각 변인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beta 계수를 사용하였다. 한편 성별의 경우 가변수를 사용하였는데, 남학생을 1점, 여학생을 0점으로 부여하였다.

<표 7>에서 볼 때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선택은 성별(beta= .150, p<.05)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두 변인의 설명력은 4.4%였다. 즉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어연출시 제품선택은 성별(beta= -.204, p<.01),



<그림 1>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그림 2> 헤어스타일 연출시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외모자신감(beta= -.229, p<.01)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0.7%였다. 즉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 선택은 성별, 외모자신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 및 제품 선택에서 헤어연출기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1>, 헤어연출제품은 용돈이 외모자신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여학생이 외모자신감이 높을수록 헤어연출제품 선택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헤어연출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따라서 헤어기기 의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헤어기기사용을 더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과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 및 제품에 대하여 청소년의 헤어스타일 연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청소년의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기기 및 제품 활용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헤어기기 및 헤어제품 선택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외모관심과 헤어기기 및 헤어제품 선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다음 외모관심 및 헤어기기 및 헤어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진주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73명이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심의 차원에서 외모관심 10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선택한 결과 적합한 요인은 외모자신감과 외모열등감의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외모관심과의 차이는 여자가 외모열등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는 외모자신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헤어연출기기 선택과의 관계는 남학생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드라이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은 2~6만원이하의 학생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드라이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헤어연출제품 선택과의 관계는 남학생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용돈을 받는 학생이 왁스나 스프레이 등의 스타일링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

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에센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는 헤어연출 기기와 헤어연출제품 모두 남학생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헤어연출기기가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헤어연출제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용돈과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는 헤어연출제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 수준이 헤어연출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돈과 헤어연출기기선택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 및 기기선택과의 상관관계는 외모자신감과 헤어연출기기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용돈과 헤어연출제품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모열등감은 성별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외모열등감이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외모자신감은 용돈,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선택은 성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어연출시 제품선택은 성별, 외모자신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외모자신감이 더 높았고, 여학생은 외모자신감이 높을수록 헤어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헤어기기 의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헤어기기사용을 더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별과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 및 제품에 대하여 청소년의 헤어스타일 연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청소년의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기기 및 제품 활용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청소년들의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과 기기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과도한 헤어연출기기와 제품의 사용은 두피 및 모발의 손상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두피 및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모발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스타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미용관계자들의 적절한 조언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지역과 표집대상을 임의 표집하여 얻은 결과이며, 인구통계적 변인으로서도 성별과 용돈을 제한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외모관심과 헤어연출기기 및 헤어연출제품의 측정도구가 제한된 문항으로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및 학교 유형의 확대와 외모관심의 특성,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각 차원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1) 김재숙, 이미숙(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5), pp.957-968.
- 2) 구자명, 이명희(1994),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pp.153-163.
- 3) "겨울철 소홀한 모발관리, '스타일도 망친다'",(2010. 12. 01), *약업신문*, 자료검색일 2011. 06. 15, 자료출처 <http://www.yakup.com>
- 4) "자극이 강한 왁스·스프레이, 두피 손상 및 탈모 유발시켜", (2011. 05. 23), *엑스포츠뉴스*, 자료검색일 2011. 05. 30, 자료출처 <http://xportsnews.hankyung.com>
- 5) "명품 고대기 B2y 모발 손상 최소화", (2010. 02. 01), *문화저널 21*, 자료검색일 2011. 05. 30, 자료출처 <http://www.mhj21.com>
- 6) 허정아(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7-70.
- 7) 홍선옥(1998),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의복태도 및 의복착용 시 영향집단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2-84.
- 8) 이미숙(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9-114.
- 9) 하주연(2002)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선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50.
- 10) 이수경(1997),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2-47.
- 11) 설현진, 최인려(2010), "중·고등학교 여자 청소년의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학회지*, 18(3), pp.514-525.
- 12) 공차숙(2007), "인터넷 쇼핑물에서 관여도와 만족이 헤어 제품 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8(3), pp.89-105.
- 13) 장진영, 황선진, 전호경(2007), "외모관심도, 화장품 브랜드원산지 및 만족유형에 따른 남성화장품 구매행동", *한국의류학회지*, 57(6), pp.160-171.
- 14) 문혜경, 유태순(2003),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3(4), pp.101-112.
- 15) 장진영, 황선진, 전호경, op. cit., pp.160-171.
- 16) Thompson, J., Heinberg, L.(1999), "The media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social Issues*, 55, pp.339-353.
- 17) Froming, W. J., Carver, C.(1981), "Divergent influence of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in a compliance paradigm", *Journal of the Research in personality*, 158, pp.159-171.
- 18) 이은희(2007),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pp.49-58.
- 19) 서윤경(200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48.
- 20) Ibid., pp.26-48.
- 21) 조선명(2000),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7-59.

- 22) 홍선옥(1998),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의복태도 및 의복착용 시 영향집단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2-84.
- 23) 허정아(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 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2-64.
- 24) 장진영, 황선진, 정호경(2007), "외모관심도, 화장품 브랜드원산지 및 판촉유형에 따른 남성화장품 구매행동", *복식학회지*, 57(6), pp.93-100.
- 25) 이지수(2004), "성인 남성의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관한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43.
- 26) 우지영(2005), "20-30 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메트로섹슈얼 성향과 외모관리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59.
- 27) 최원준(2004), "탈모방지 및 발모에 관한 특허동향 고찰",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 28) 장선일 외(2005), *미용학개론*, 광문각, p. 157.
- 29) "겨울철 소홀한 모발관리, '스타일도 망친다'", (2010. 12. 01), *약업신문*, 자료검색일 2011. 06. 15, 자료출처 <http://www.yakup.com>
- 30) "갈라진 모발, 손상된 모발, 건조한 모발 일주일에 한번 3분이면 찰랑거리는 머릿결 만들 수 있다", (2010. 09. 10), *마이데일리뉴스*, 자료검색일 2011. 06. 15, 자료출처 <http://www1.mydaily.co.kr>
- 31) "명품 고대기 B2y 모발 손상 최소화", (2010. 02. 01), *문화저널 21*, 자료검색일 2011. 05. 30, 자료출처 <http://www.mhj21.com>
- 32) 임인숙(2007), "아이롱 펌에 관한 시술자 및 소비자 반응에 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 8(3), pp.91-105.
- 33) 이부형(2002), "열기구(아이론, 드라이어) 사용에 의한 모발의 손상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 3(3), pp.147-154.
- 34)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윤기있고 탄력있게 만들어야 젊어서 산다", (2011. 02. 24), *굿데이 스포츠*, 자료검색일 2011. 06. 18, 자료출처 <http://www.gooddaysports.co.kr>
- 35) 이종순(2005), "헤어스프레이와 헤어미스트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37.
- 36)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윤기있고 탄력있게 만들어야 젊어서 산다", (2011. 02. 24), *굿데이 스포츠*, 자료검색일 2011. 06. 18, 자료출처 <http://www.gooddaysports.co.kr>
- 37) "B2y 헤어 아이론, 여학생 졸업선물로 '인기'", (2010. 2. 9), *마이데일리*, 자료검색 2011. 06. 18, 자료출처 <http://www.mydaily.co.kr>
- 38) "명품 고대기 B2y 모발 손상 최소화", (2010. 02. 01), *문화저널 21*, 자료검색일 2011. 05. 30, 자료출처 <http://www.mhj21.com>
- 39) 서윤경, op. cit., pp. 26-48.
- 40) 조선명, op. cit., pp. 27-59.
- 41)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0-42.
- 42) 정지영(2003),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에 따른 신체관리행동 및 의복추구해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38.
- 43) 이은희, op. cit., pp.49-58.
- 44) 홍선옥(1998),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의복태도 및 의복착용 시 영향집단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2-84.
- 45) 허정아(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 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2-64.
- 46) 장진영, 황선진, 정호경(2007), "외모관심도, 화장품 브랜드원산지 및 판촉유형에 따른 남성화장품 구매행동", *복식*, 57(6), pp.93-100.
- 47) 이지수, op.cit., pp.34-43.
- 48) 우지영, op.cit., pp.24-59.
- 49) "명품 고대기 B2y 모발 손상 최소화", (2010. 02. 01), *문화저널 21*, 자료검색일 2011. 05. 30, 자료출처 <http://www.mhj21.com>

접수일(2011년 6월 24일),
수정일(1차 : 2011년 8월 19일, 2차 : 9월 30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3일)